

미가서 강해 10

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(미가 6:1~16)

☞ 들어가면서

□ 미가서의 전체 구조

→ "들으라"로 시작하는 3개의 단락 / 심판과 회복의 반복

▶ 1단락: 미가 1~2장 → 1:2 "너희는 **들을지어다**"

▶ 2단락: 미가 3~5장 → 3:1 "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 **들으라**"

▶ 3단락: 미가 6~7장 → 6:1 "너희는 여호와와 말씀 **들을지어다**"

☉ 미가서의 핵심 : 미가서 6:6~8

□ 미가서 6장의 구조

(1) 1장과 마찬가지로 ()이 배경 → "변론하다" (그림언어)

(2)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()이 기반 (신명기 30:16~)

A. 하나님을 사랑할 것 B.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행할 것 C. 순종하면 축복, 불순종하면 저주

▶ 6:1~5 → 하나님은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셨는가? (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드러냄)

▶ 6:6~8 →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인가? (언약의 본질은 무엇인가?)

▶ 6:9~16 →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상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 (언약에 불성실한 결과)

☉ "언약의 이행"이 중요한 관점

□ 6:1~5 “하나님은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셨는가(공의로우셨는가)?”

▶ "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"

(1) "견고한" : 영원한, 항상 있는 (2) "지대" : 기초

→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땅의 기초들아! ☞ 언약에 있어서 **한결 같으신** 하나님을 상징

▶ "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?"

→ "내가 너에게 행하지 않은 선한 일이 있느냐?" ☞ 역시 하나님의 ()을 강조

▶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을 확증하는 역사적 증거

(1) 출애굽을 통한 "속량"

→ 출애굽기 2:24 언약을 **기억하신** 하나님

(2)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심

→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 지도자들 ☞ 하나님의 한결같은 **인도하심**을 상징

(3)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대답한 것

→ 민수기 22장~ :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시도, 그러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

→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손길

(4) "싯딤에서 길갈까지의 일"

"싯딤" : 요단강 도하 전 진을 쳤던 곳 "길갈" : 요단강 도하 후 진을 친 곳 (12개의 돌을 취한 기념비적 장소)

→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에 마주했을 때, 한결같이 "동행"하신 하나님

★ 하나님의 편에서 부여된 언약적 책임을 **한결같이** 수행하신 하나님!

✎ 묵상 포인트

(1) 내 삶에서도 한결 같으셨던 하나님의 모습 회상하기

(2)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한결 같은가?

□ 미가 6:6~8 “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?”

Q.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는?

→ 자기의 고착화된 생각(신앙)을 고치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, "들으라"의 중요성 부각

▶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학 및 신앙

(1)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?

→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"일 년 된 송아지들" ㉞ 큰 정성을 들인 **흔하지 않은 제사, 귀한 제사**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?

(2)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?

→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것 ㉞ **막대한 양의 제물**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?

㉞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하는 오류

(3) 허물과 죄를 위해서 아들(내 몸의 열매)를 드리면 용서하실까?

→ 모압 족속이 몰렉에게 바친 "**인신제사**"를 상징 / 미가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

㉞ 하나님을 이방 신을 섬기듯이 섬기려는 악한 시도

★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피상적인 신앙!

★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모습 3가지 (언약의 본질적 요구)

(1) 오직 ()를 행하는 일

▶ **정의** : 하나님의 율법이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, 속이지 않고 정직한 것, 뇌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것,

반칙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는 것, 올바름을 추구하고 정도를 걷는 것

→ 정의는 갈망하거나 소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! 정의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!

Q. 우리는 정의를 추구만 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주저하지 않는가?

(2) ()를 사랑하는 일

▶ **인자** : 헤세드 →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"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"를 의미

→ 인자를 상실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, 소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차원으로 요청하심

(3) 겸손히 하나님과 ()하는 것

Q.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?

→ 낙심되고,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소망하면서,

끝까지 정의와 인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 ✎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

⊕ 마태복음 23:23 "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...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

정의와 공휼과 믿음은 버렸도다" (정의, 인자, 동행)

✎ **묵상 포인트**: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는가?

→ 역설적으로 회복해야 할 예배

□ 6:9~16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상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

▶ 핵심: 10~12절 →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데 사용된 3가지

(1) 가증한 에바

▶ "에바" : 35리터 정도의 곡물을 담을 수 있는 광주리

→ 광주리의 부피를 조작해서 사고 파는 양을 속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함

☞ 하나님이 엄격히 금지하시는 불의한 방법

(2) 부정한 저울 / (3) 거짓 저울추

→ 사고 파는 물건의 무게를 조작

▶ "내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깨끗하다 하겠느냐?"

→ 공정하고 공평한 저울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

레위기 19:35~36 "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**불의를 행하지 말고**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

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"

⊕ 정의의 강조가 과연 윤리적 가르침인가?

☞ 정의를 행하는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적 행위

▶ 13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

(1) 치유의 하나님 ☞ 그러나 **질병**을 보내시는 하나님

(2)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☞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**황폐**하게 하시는 하나님

(3) 채워주시는 하나님 ☞ 공히하게 하시는 하나님

(4)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☞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두시는 하나님

(5)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의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☞ 추수, 기름, 포도주 등 소산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

...→ 언약의 길이 아니라 **오므리와 아합의 길**을 걸어갔기 때문

Q. 무엇이 오므리와 아합으로 대표되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의 길인가?

...→

▶ 조소거리와 수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& 조소와 수욕의 대상으로 전락한 교회의 현실

Q. 우리가 치유와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, 수치와 조롱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

회복할 수 있을까?

☞ **다른 길은 없다.**

오직 정의를 행하고, 인자를 사랑하고,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,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.

"변칙을 버리고 본질을 선택하자"